

와타나베 가문 주택

와타나베 가문 주택은 긴잔초(은광 마을)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무사 주택으로 에도 시대(1603~1867년)에는 울타리로 구분되어 출입이 제한된 구역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주택은 2002년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었을 당시 소유주의 이름을 따서 '와타나베 가문 주택'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원래는 1811년 은광 경영에 종사한 중간급 관리자였던 사카모토 가문이 지은 것입니다. 사카모토 가문은 1604년에 초대 당주인 세이자에몬이 에도 시대에 이와미 은광을 직접적으로 통괄했던 은광 부교(무가 시대에 행정 사무를 담당했던 장관급 관리)에게 고용된 것을 시작으로 대대로 그 직책을 계승했는데 그의 후손 중에는 은광을 경영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주택에서는 당당한 모습의 문과 담장, 큰 길과 안채 사이에 배치된 정원, 두 개의 현관 등 무사 주택의 전형적인 특징을 다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현관 중 좌측의 작은 문은 거주자용으로 사용되었고 우측의 커다란 현관은 다다미가 깔린 두 개의 방과 연결되어 특별한 때에만 열렸습니다. 이 입구는 부교나 고위 관리 등 중요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안채 뒤쪽에는 2층짜리 창고와 모던한 건물이 있습니다. 와타나베 가문 주택은 부정기적으로 일반인에게 공개됩니다.